

WEEKLY STRATEGY

2026. 6. 19.

리서치센터 투자정보팀

김종민 수석연구위원
jm56.kim@samsung.com

박기량 수석연구위원, CFA
keeryang.park@samsung.com

조아인 수석연구위원
ahin.jo@samsung.com

이형승 연구원
hyungseung54.lee@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6월 | 4주

주간 투자 전략

기'반'지세: 반도체를 타고 달리는 형세

기'반'지세: 반도체를 타고 달리는 형세

혼란한 변동성 장세가 끝나고 대세 상승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9,300pt 선을 상회하며 한국 증시 역사를 새롭게 쓰는 중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파생 시장의 수급 교란, 스페이스X IPO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흡수 우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데뷔 무대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단기적인 시장 악재들이 해소된 결과입니다. 당분간 가격 변동성(소음)은 유발될 수 있으나, 이 상승 흐름을 멈춰 세울 실질적인 펀더멘털(몸통)의 훼손은 찾아보기 힘든 악재 공백기입니다. 이제 증시의 시선은 'AI 성장성'이라는 몸통의 건재함을 숫자로 확인하는 강력한 펀더멘털 실적 장세로 회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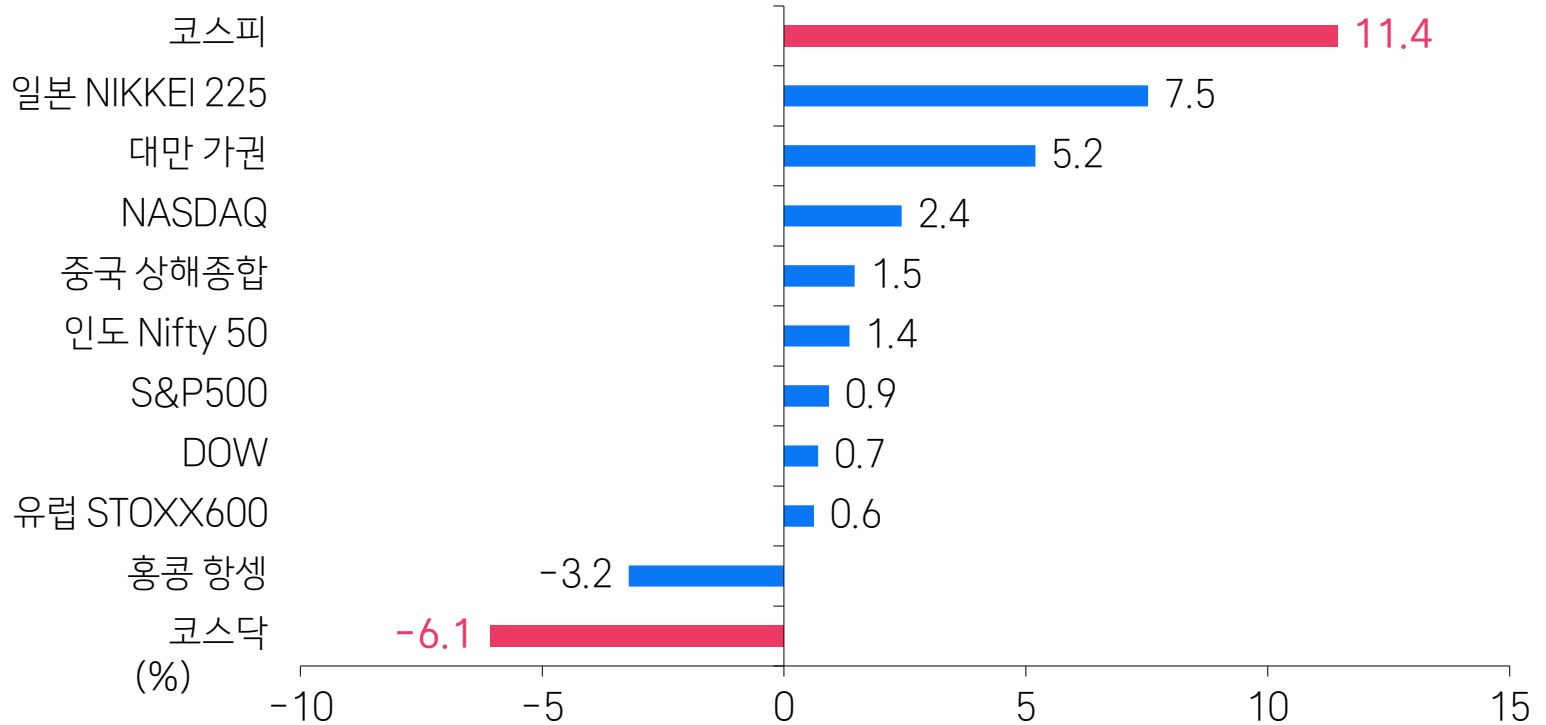
이번 펀더멘털 실적 장세의 중심축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6월 25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7월 초 삼성전자, 7월 중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숨 가쁘게 이어지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구심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닝 시즌은 반도체 산업의 강력한 실적 성장세는 물론,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구조적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 환경을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한국 증시는 반도체라는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타 새로운 마디 지수를 향해 질주하는 이른바 기'반'지세의 형국을 보일 것입니다.

다만, 이번 반도체 주도 장세에서 여타 섹터로의 낙수효과나 온기 확산을 기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전략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증시는 '상승 Phase 3(엘리어트 5파)'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국면의 가장 큰 기술적·수급적 특징은 "집중"입니다. 대세 상승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으로 유입되는 한계 유동성의 총량 자체는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때문에, 지수 전체를 고르게 밀어 올릴 시장 체력은 고갈됩니다. 결국 한정된 시장 수급은 가장 확실한 이익 성장의 서사와 확고한 숫자가 담보된 '반도체' 섹터로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주 주간 투자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합니다. OCI홀딩스와 HL만도를 편출하고 SK스퀘어와 삼성물산을 신규 편입합니다. 여전히 이상적인 순환매를 기다리기보다는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증시 | 변동성을 딛고 상승

주요국 증시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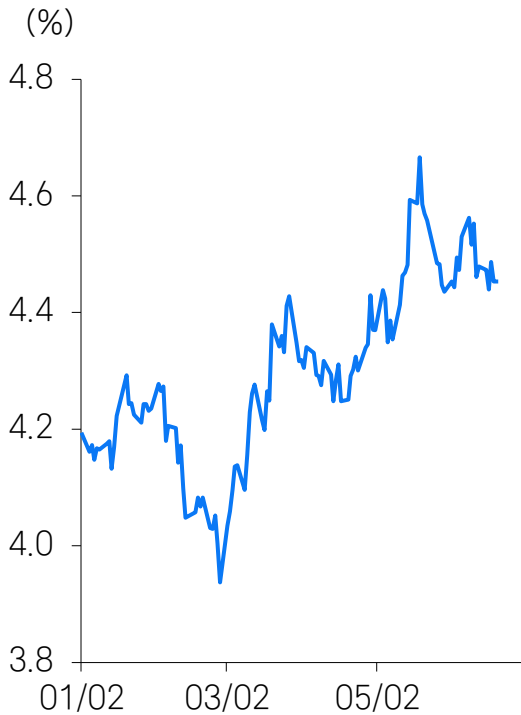


참고: '26.6.19 15:30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매크로 | 금리(-), 유가(▼),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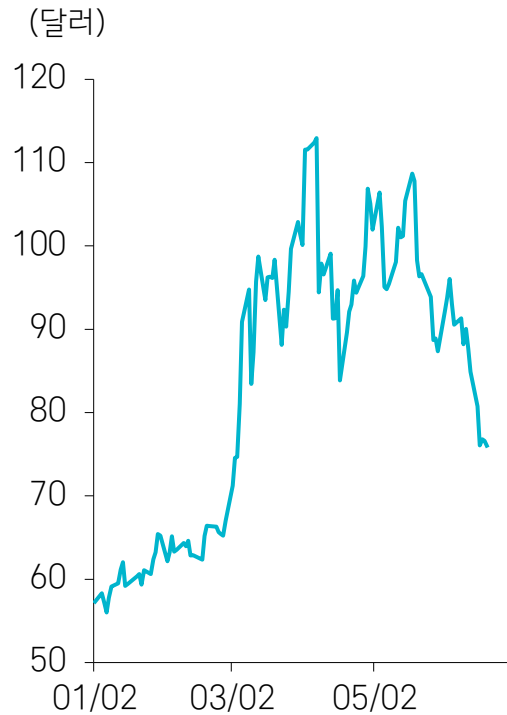
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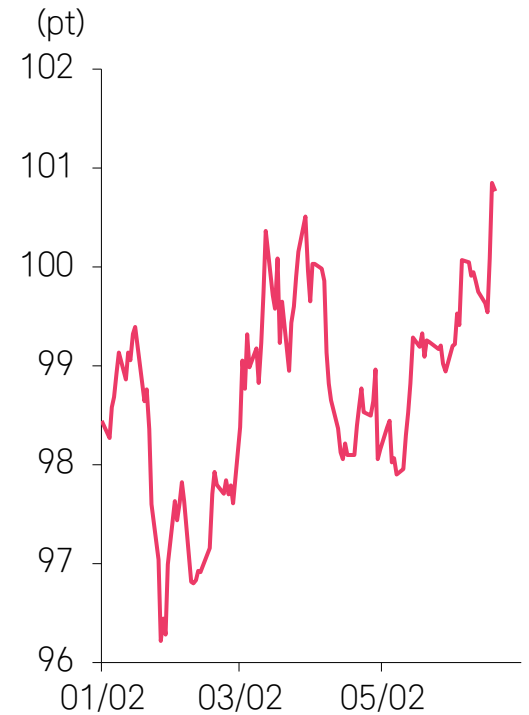
원자재

유가(WTI)



환율

달러 인덱스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케빈 워시가 이끈 첫 FOMC

THE WALL STREET JOURNAL

Kevin Warsh Wants the Fed to Stop Explaining Every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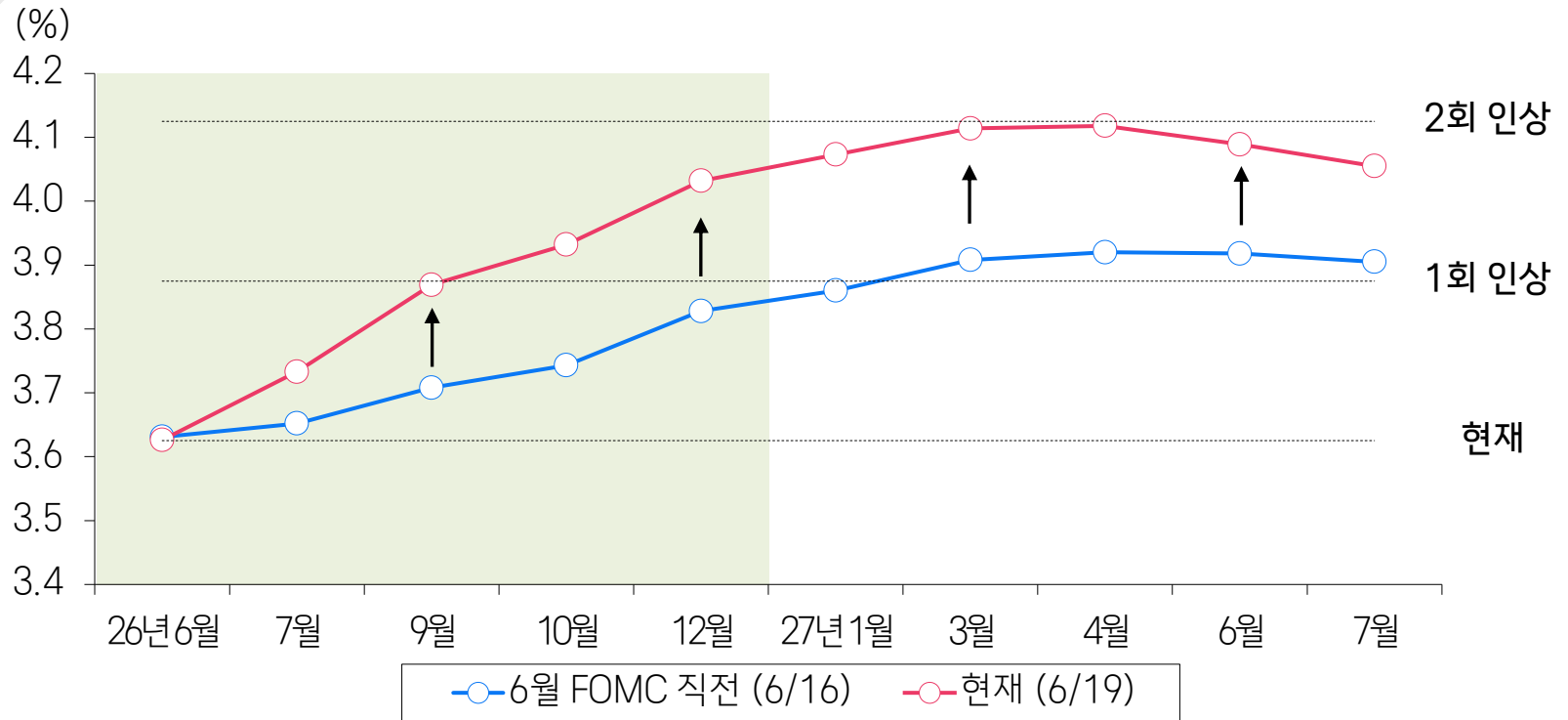
케빈 워시, 연준의 가이드런스 제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 1 간결해진 성명문
- 2 점도표 제출 거부
- 3 연준 개혁 방안 제시

FOMC | 금리 인상 경계감 확산

미국 기준 금리 예상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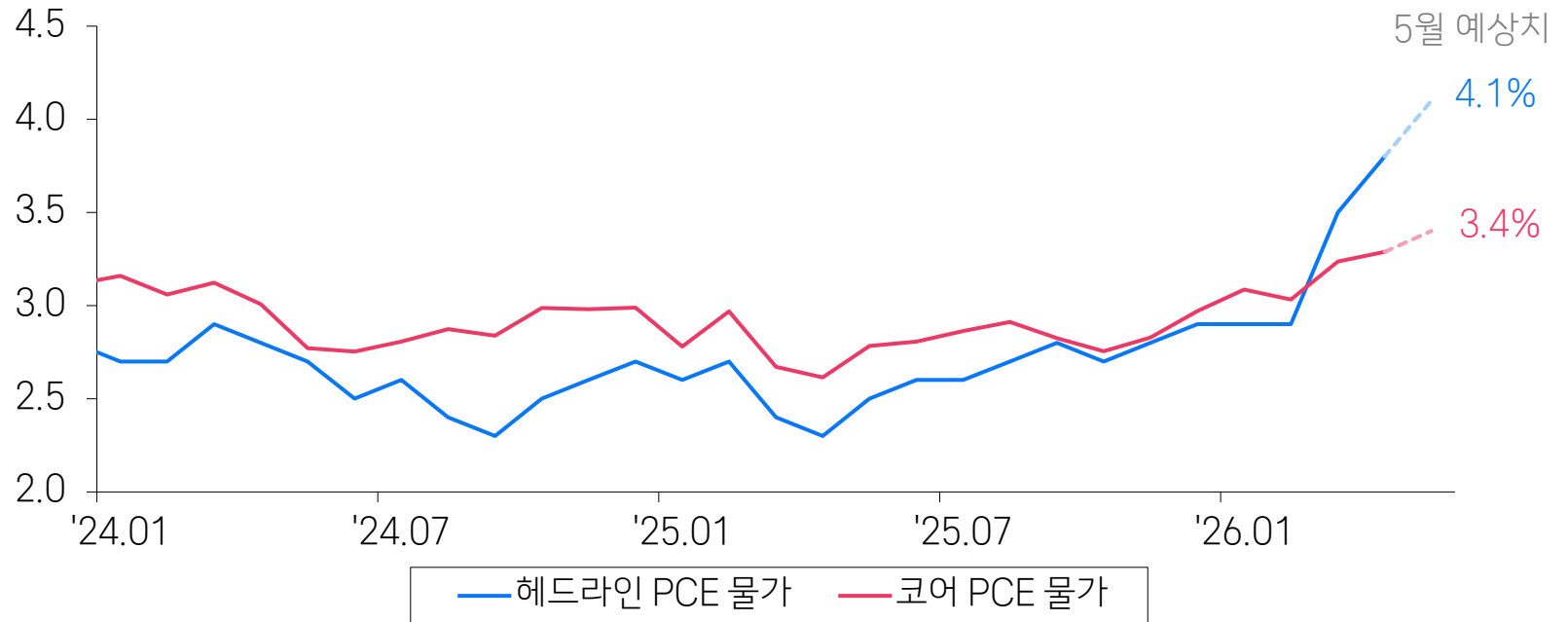


참고: 금리선물시장 반영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물가 |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PCE 물가지수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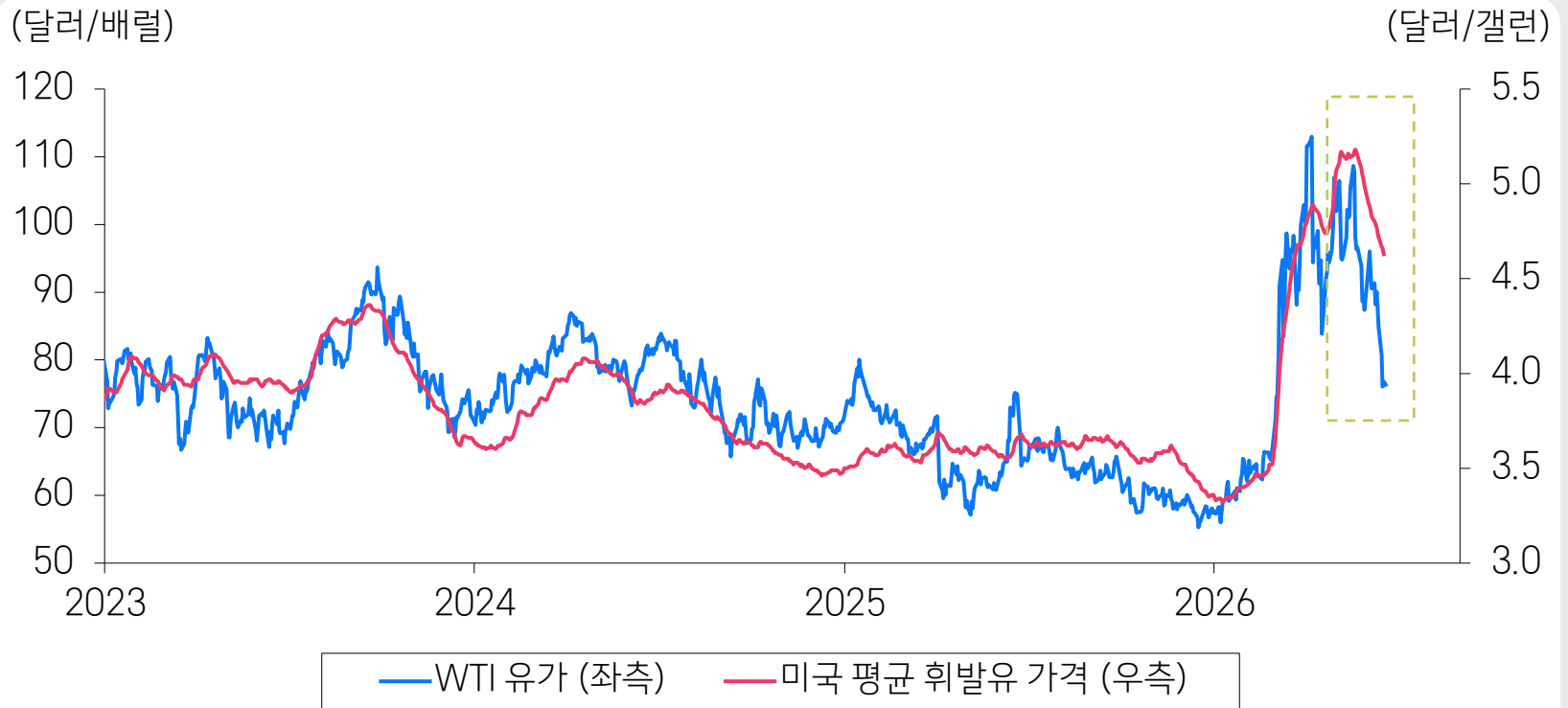
(YoY,%)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물가 | 에너지 가격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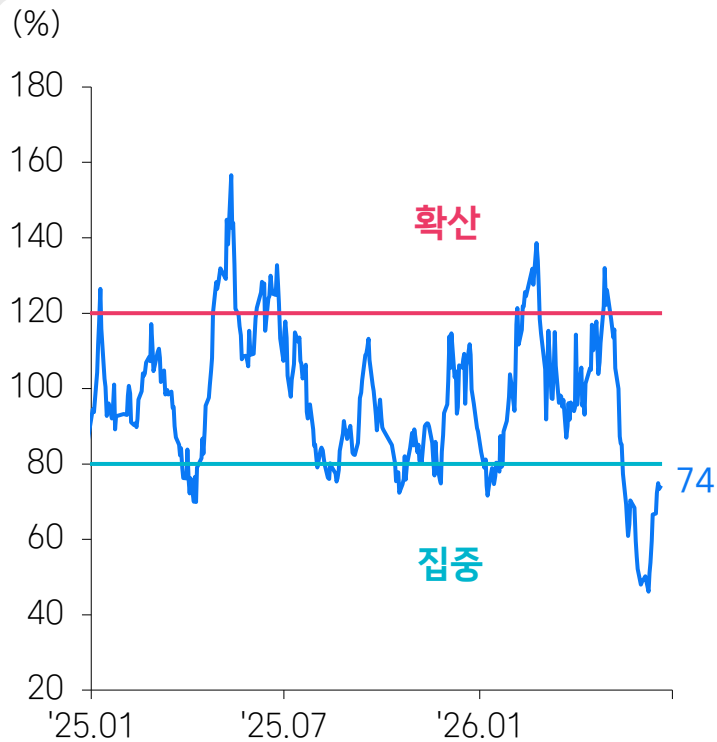
원유·휘발유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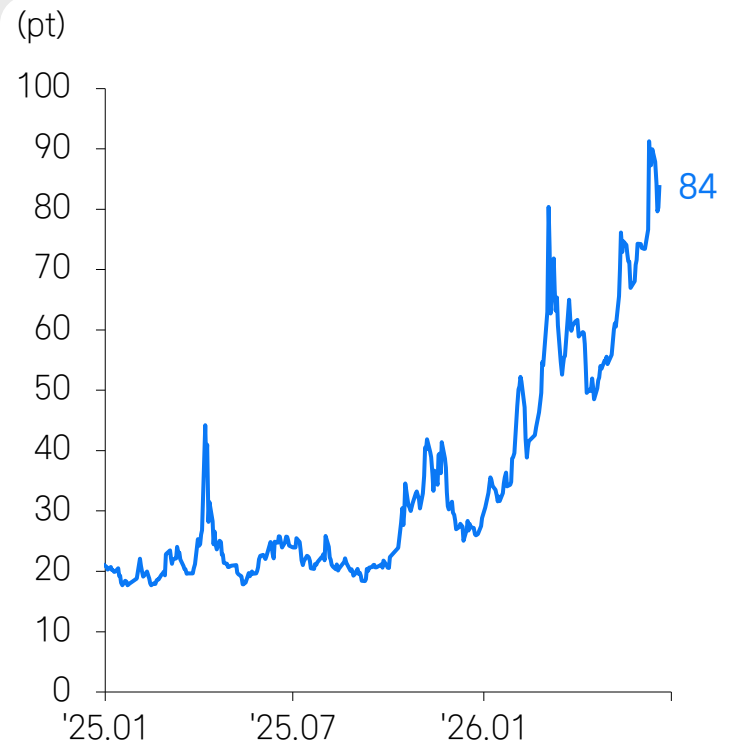
한국 증시 | 일시 해소된 과열은 상승을 위한 발판

코스피 ADR



참고: ADR = 20일 누적 상승 종목수/하락 종목수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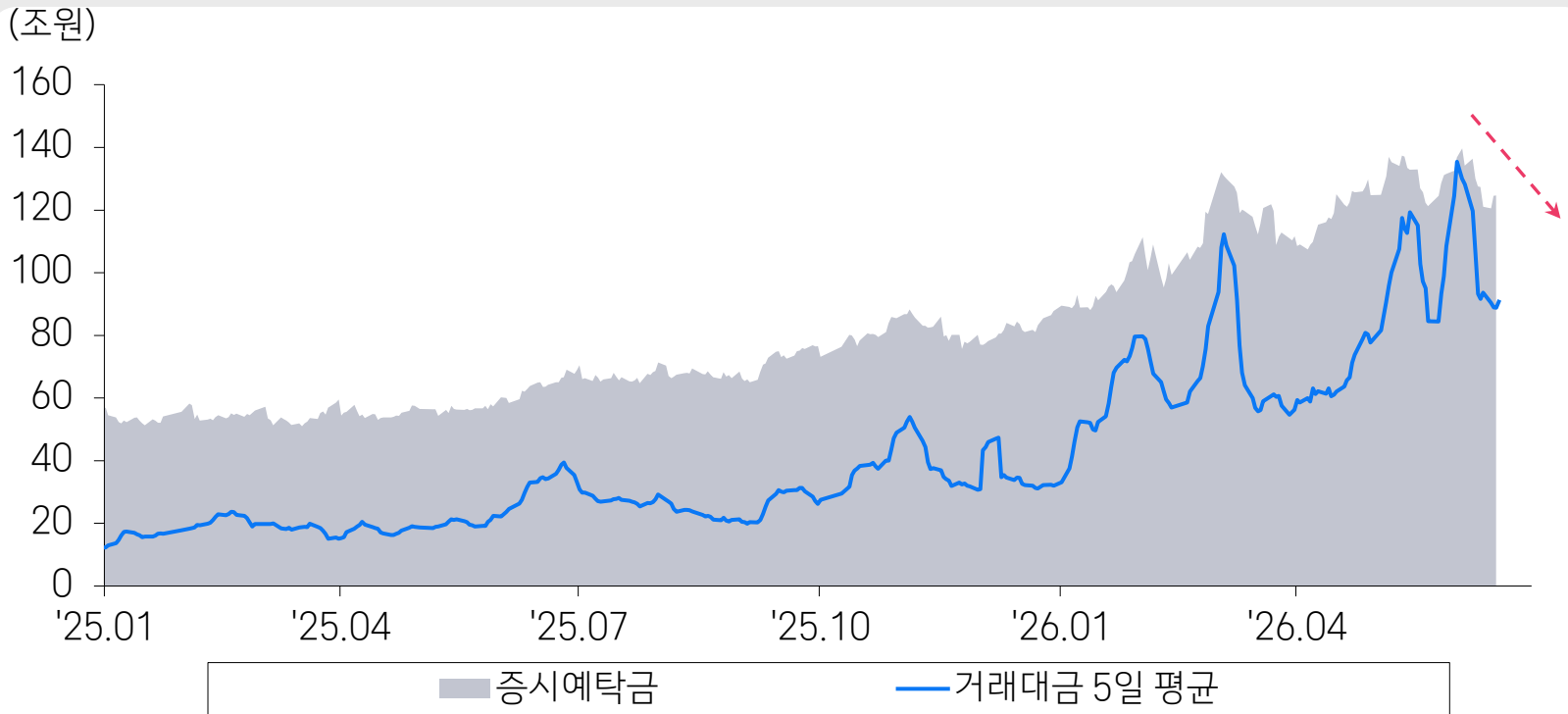
VKOSPI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한국 증시 | 시장 자금 유입 강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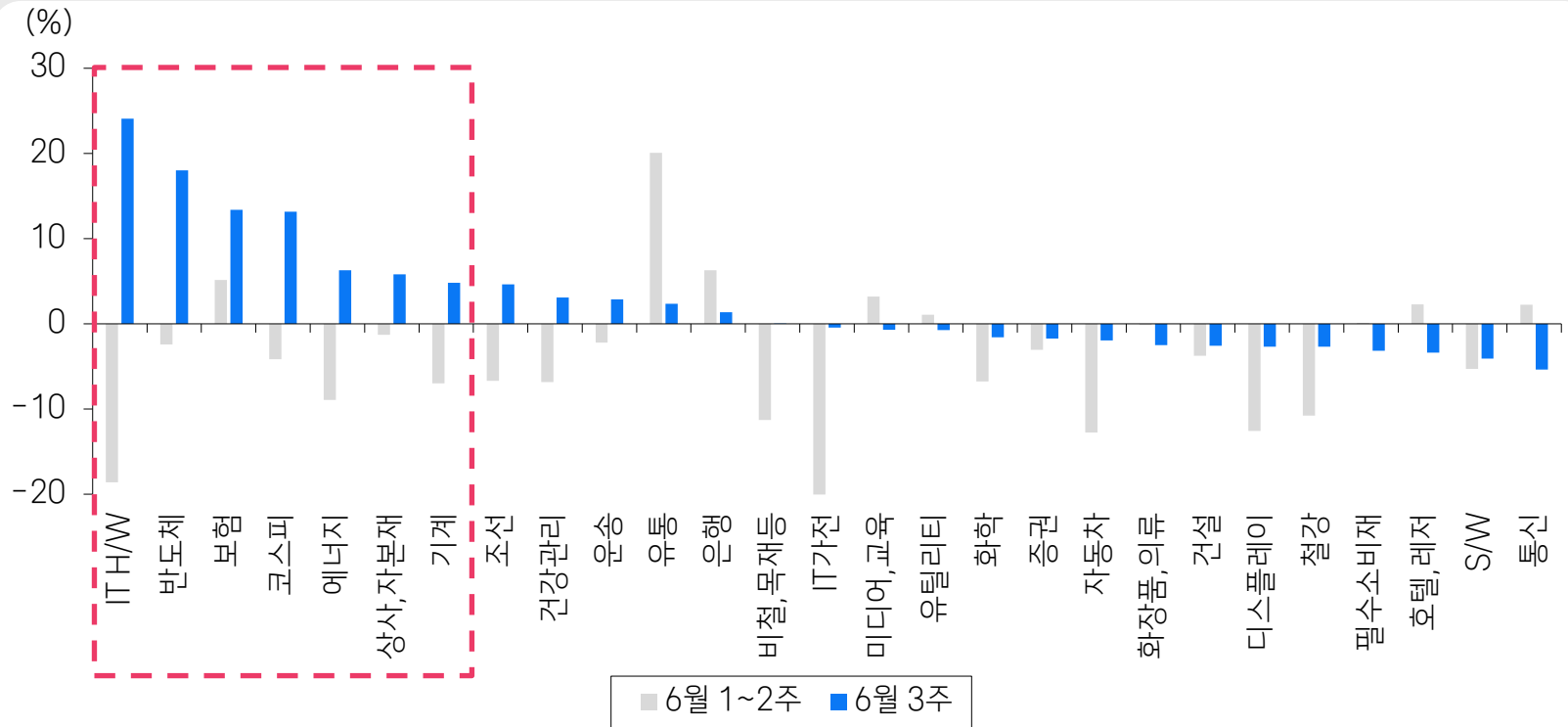
거래대금과 증시에탁금 추이



참고: '26.6.19 15:30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한국 증시 | 돌고 돌아 주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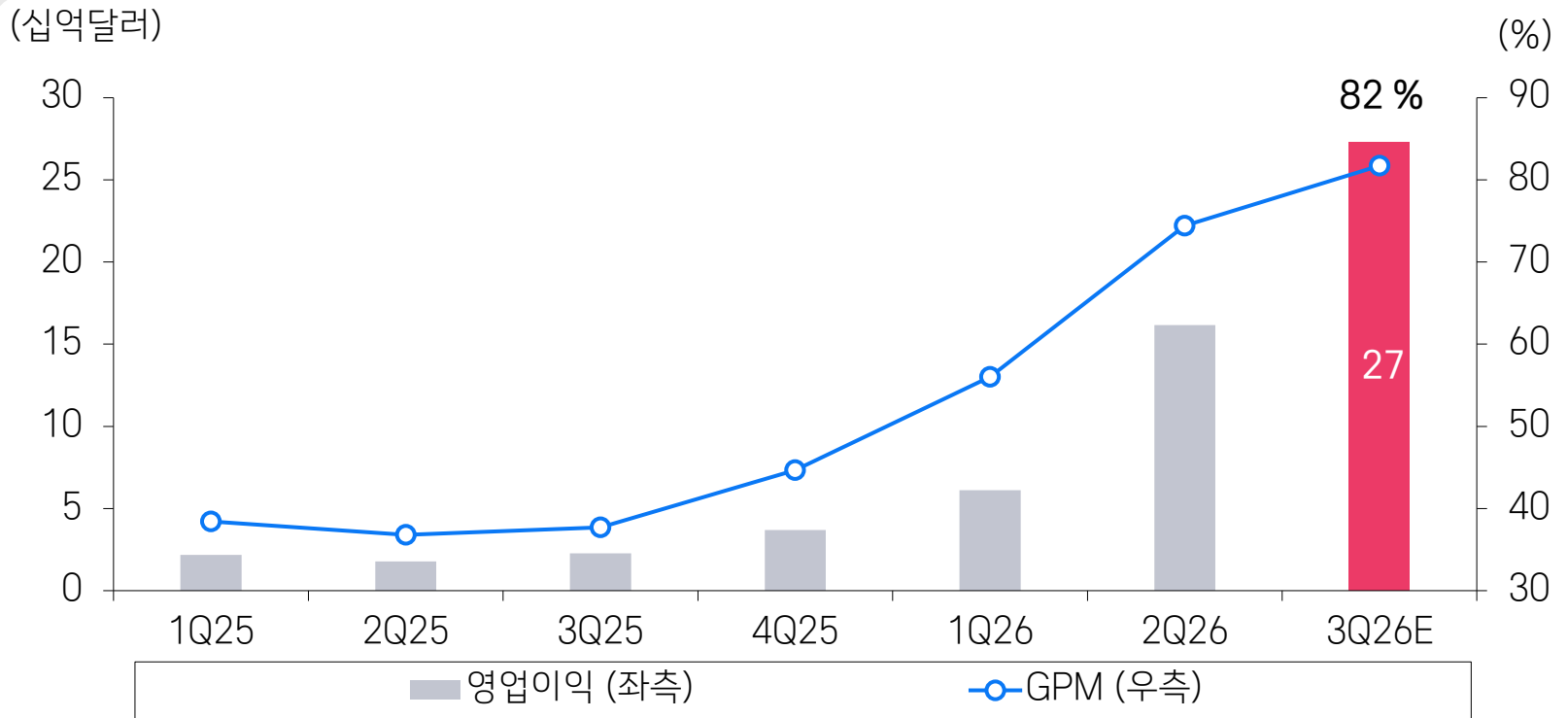
6월 업종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반도체 | 6/25(목)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

마이크론 분기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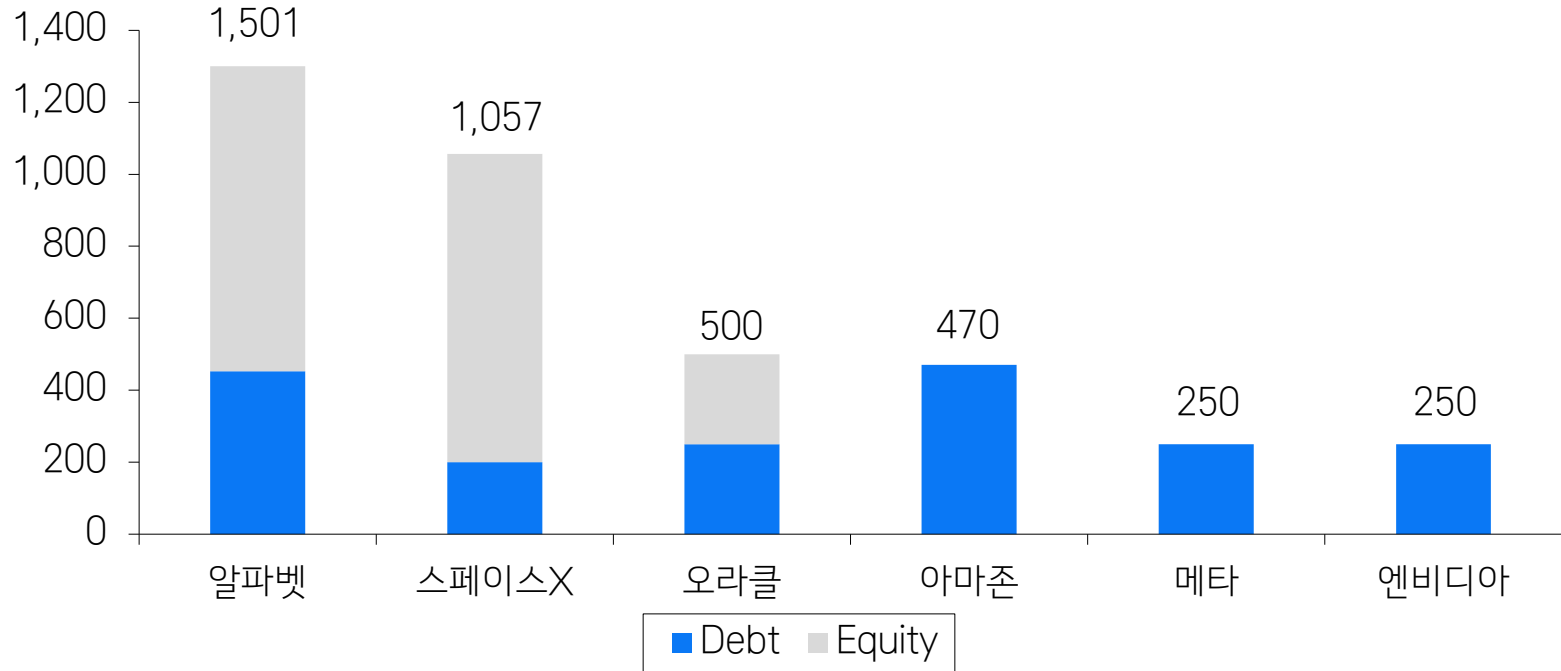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반도체 | AI 자본조달 및 투자 가속화

2026년 AI 기업 자본조달 규모

(억 달러)



참고: 기 발표된 계획 포함
자료: 각 사, 언론 종합, 삼성증권

'26년 6월 주요 일정

6월 4주

- 6월 21일 (일)
한국 6월 1~20일 수출입
- 6월 22일 (월)
BIO USA(~6/25)
AUTOMATE 2026(~6/25)
- 6월 23일 (화)
인터배터리 유럽 2026(~6/25)
- 6월 25일 (목)
★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한국 시간 05:30)
★ 미국 5월 PCE 물가지수(한국 시간 21:30)
미국 1분기 GDP 확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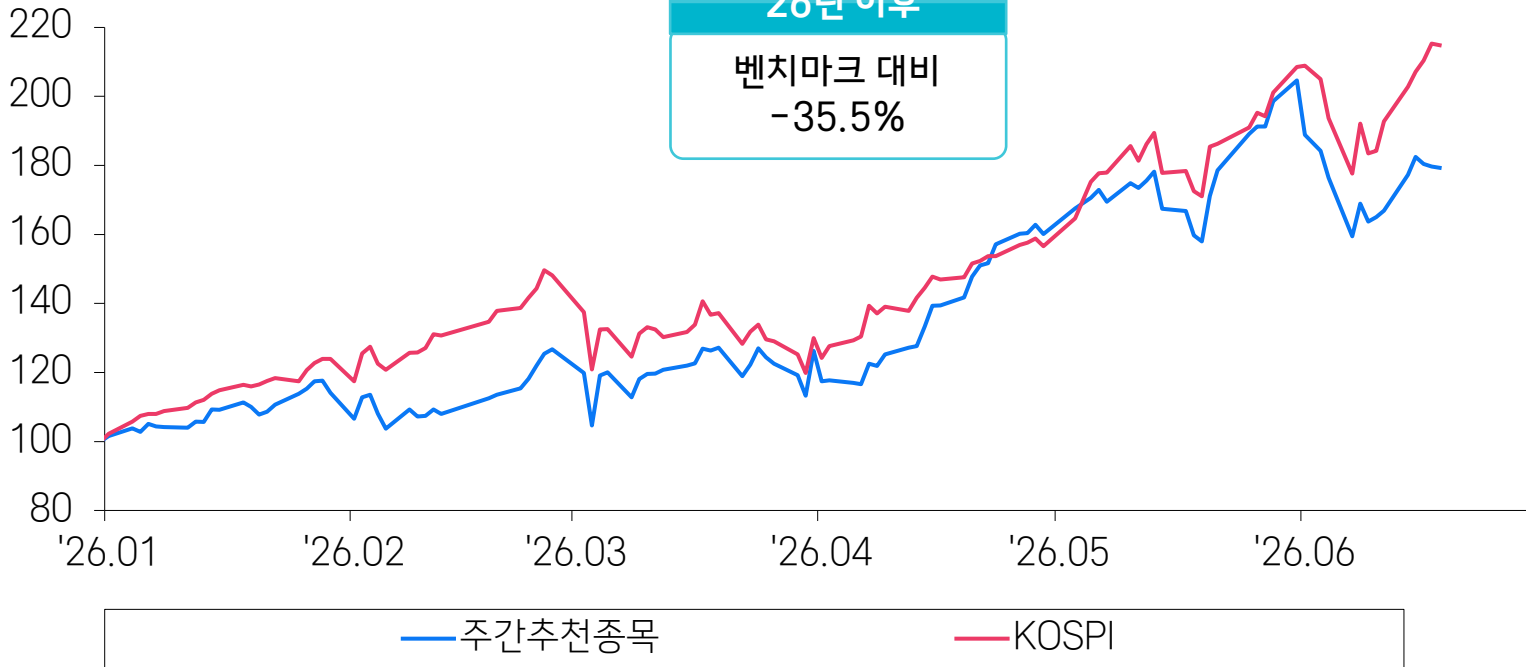
7월 1주~

- 6월 29일 (월)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시범 거래
ECB 신트라포럼(~7/1)
- 6월 30일 (화)
미국 5월 구인·이직보고서(한국 시간 23:00)
- 7월 1일 (수)
★ 홍콩 증시 휴장(반환기념일)
한국 6월 수출입
6월 ISM 제조업 지수(한국 시간 23:00)
- 7월 2일 (목)
★ 미국 6월 고용보고서(한국 시간 21:30)
- 7월 3일 (금)
★ 미국 증시 휴장(독립기념일)

주간 추천 종목 | 누적 성과 추이('26.01~)

'26년 연간 수익률

(지수화: '26.01=100pt)



자료: 삼성증권

주간 추천 종목 | 6월 4주

종목명	주가(원)	시가총액(십억원)	추천일	수익률 (%)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354,000	2,069,583	1/2	195.2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되며 높은 이익 유지
SK하이닉스	2,764,000	1,969,909	1/2	324.6	이익의 지속성이 강화되며 반도체 장기 호황 사이클 진입
NEW SK스퀘어*	1,780,000	234,886	6/22	0.0	SK하이닉스 지분가치(20.5%)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
삼성전기	2,270,000	169,555	2/23	502.1	MLCC·패키지기판의 구조적 성장
현대차	613,000	125,517	5/11	0.0	AI 성장 스토리의 온기 확산으로 피지컬 AI 매력 보유
NEW 삼성물산*	491,500	79,705	6/22	0.0	삼성전자 지분가치(5.1%) 부각에 따른 재평가
삼성SDI	555,000	44,725	4/6	26.6	북미 ESS 성장, 유럽 EV 회복으로 3분기 흑자 전환 예상
LS ELECTRIC	259,000	38,850	4/13	64.3	신규 수주 잔고 증가에 따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정당화
LG이노텍	1,145,000	27,099	6/1	-21.5	기판 업종 리레이팅 국면 속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두산*	1,631,000	26,412	5/18	1.1	AI 가속기·메모리향 공급 증가로 실적 상승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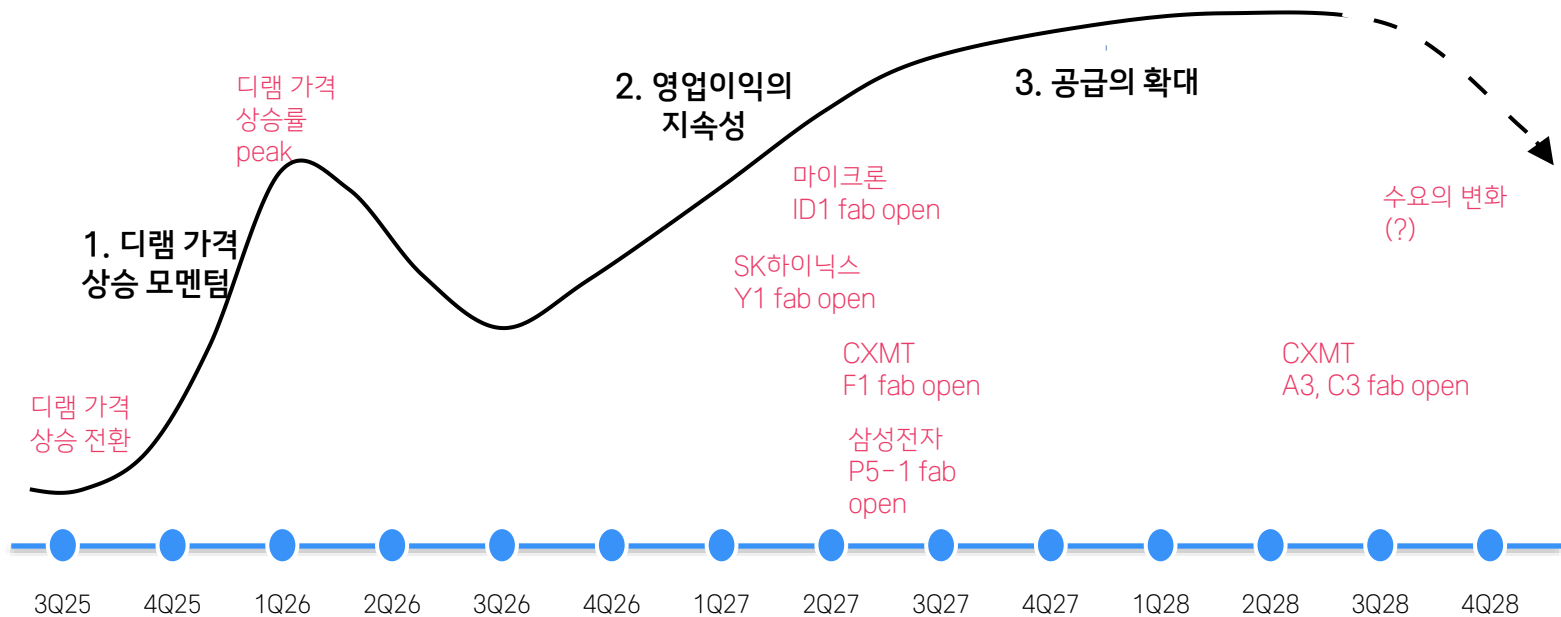
참고: *해당 종목은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26.6.19. 종가 기준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포트폴리오 편출 OCI홀딩스(+11.8%), HL만도(+0.5%): 차익실현 및 범 반도체 BIG2 비중 확대

반도체 | 디램 사이클 전망

DRAM 매출액 vs 주요 Fab 타임라인



자료: WSTS, 삼성증권 추정

반도체 | 글로벌 Top 10 목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리스트

순위	기업명	시가총액(조원)	26년 영업이익(조원)	PER(배)
1	엔비디아	7,854	391	20.4
2	알파벳	6,897	258	24.9
3	애플	6,743	239	31.7
4	MS	4,342	233	19.5
5	아마존	4,050	158	22.4
6	스페이스X	3,750	- 5	N/A
7	TSMC	3,048	143	21.8
8	브로드컴	3,015	106	25.0
9	테슬라	2,317	8	187.8
10	메타	2,257	137	14.6
11	삼성전자	2,070	350	6.8
12	SK하이닉스	1,970	260	7.7
13	마이크론	1,970	125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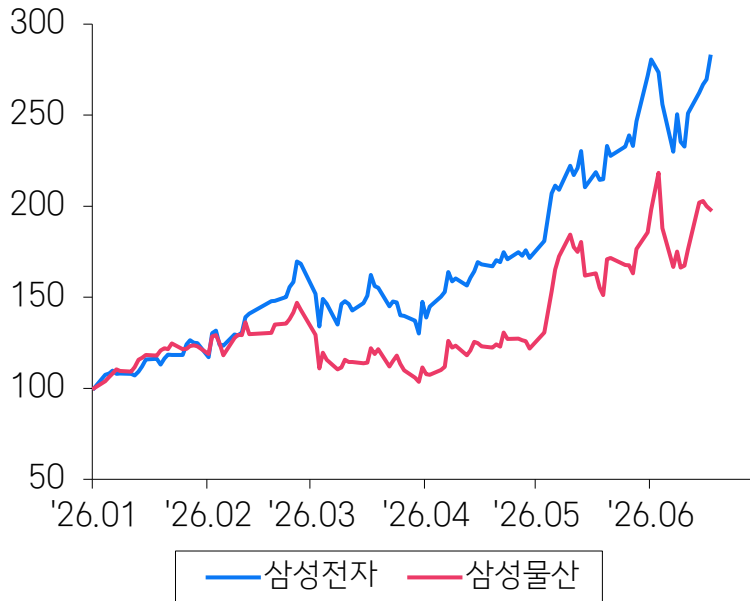
참고: '26.6.19 기준, PER은 12개월 선행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물산·SK스퀘어(신규) | 반도체 Big2 베타 플레이

-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 5.1% / SK스퀘어, SK하이닉스 지분 20.5% 보유
- 보유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 수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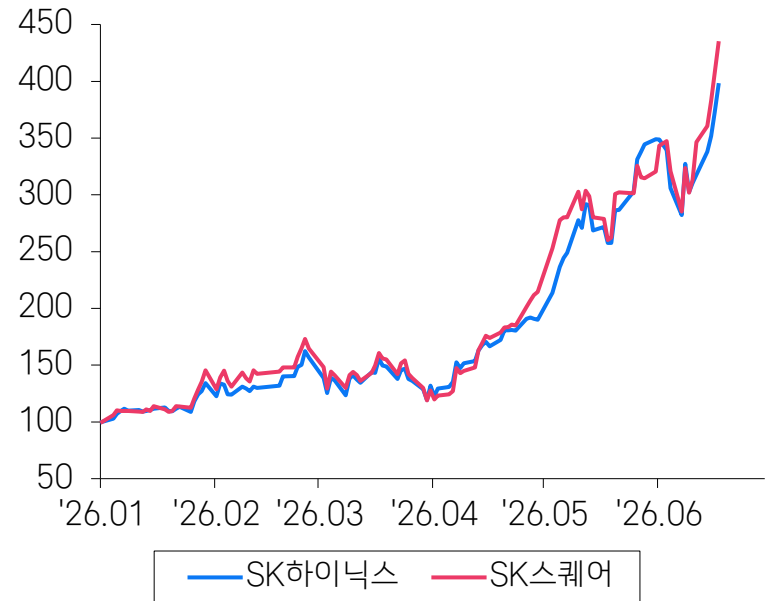
삼성전자·삼성물산 주가 추이

(지수화: '26.01=100pt)



SK하이닉스·SK스퀘어 주가 추이

(지수화: '26.01=100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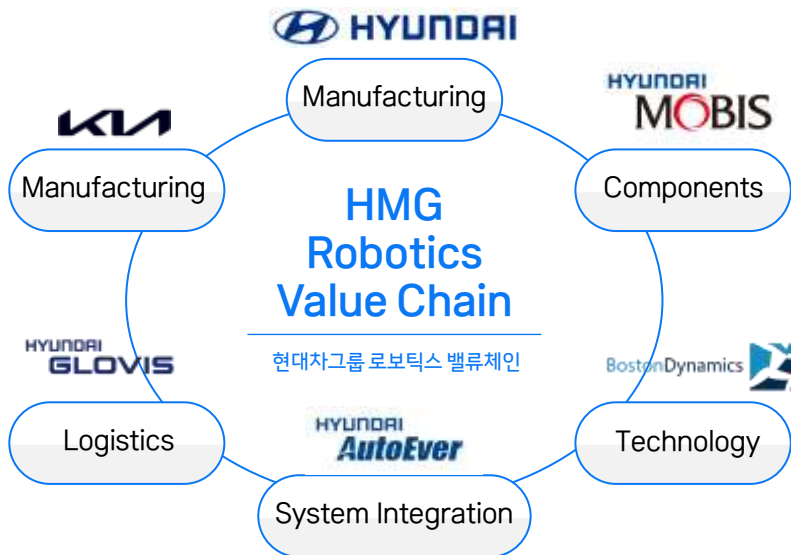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현대차 | 피지컬 AI 대표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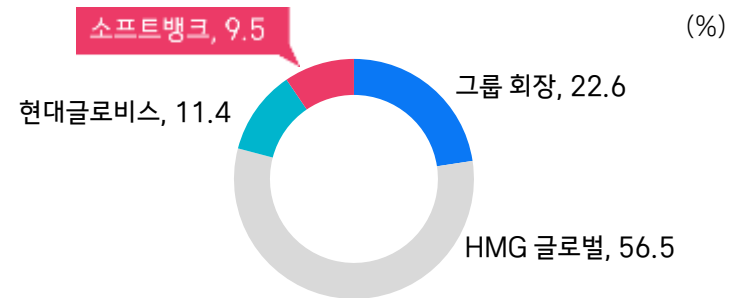
-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구축. 글로벌 빅테크와 피지컬 AI 협력
- 소프트뱅크, BD 풋옵션 행사로 지분 9.65%를 약 5,000억원에 현대차그룹에 매각 예정(언론 보도)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밸류체인 현황



자료: 보스턴다이내믹스, 삼성증권

소프트뱅크의 DB 지분 인수 가능성



소프트뱅크 지분 인수 전 지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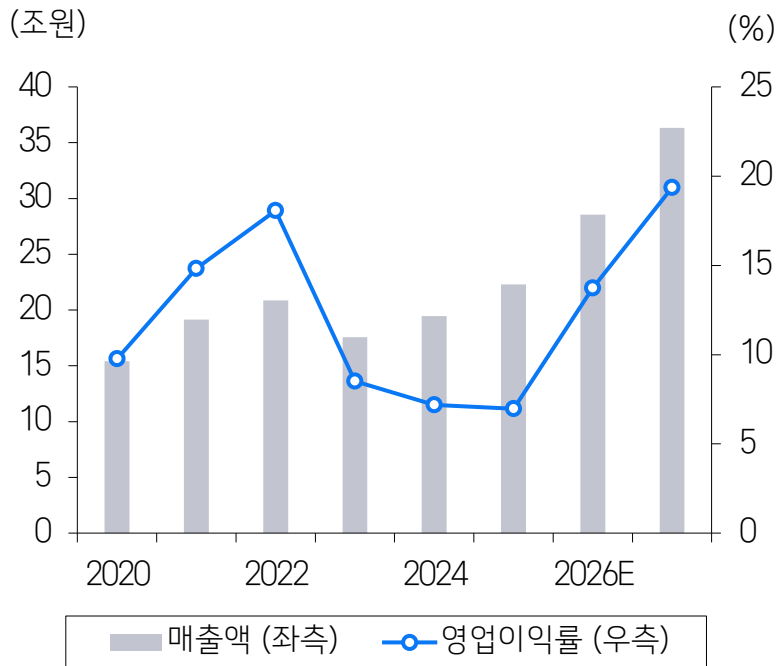
주주	소프트뱅크지분인수전	인수후
현대차	27.96%	30.95%
기아	17.22%	19.06%
현대모비스	11.20%	12.40%
현대글로벌비스	11.40%	12.62%
그룹회장	22.57%	24.98%

자료: 삼성증권

삼성전기 |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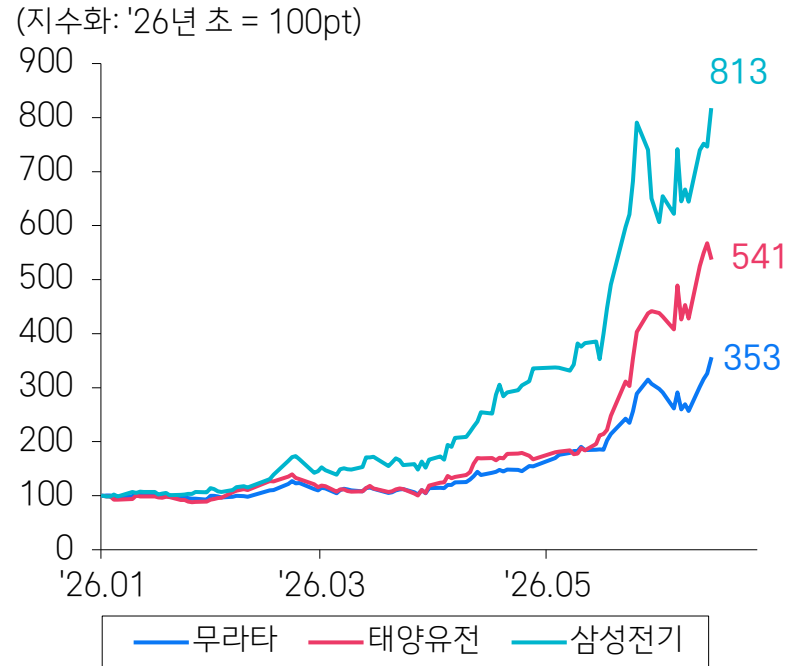
- 기판: 타이트한 수급 지속. 고객사는 선수금을 동반한 LTA와 공급 확대 요구. 높은 가격 협상력 기반 수익성 개선 기대
- MLCC: AI 서버용 고성능 MLCC 수요 증가. 주요 업체 풀가동률 도달하며 공급 부족 심화. 가격 인상 흐름 지속

패키지 기판 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참고: 삼성전기, 이비덴, 대덕전자, 삼성전기, 유니 마이크로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요 MLCC 기업 연초 이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LS ELECTRIC | AI 인프라의 병목, 전력

- 美 규제당국,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신속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 승인 검토
- AI DC향 초고압변압기, 배전반 등 전력기기 수주 호조.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 지속

미국 전력망 승인 과정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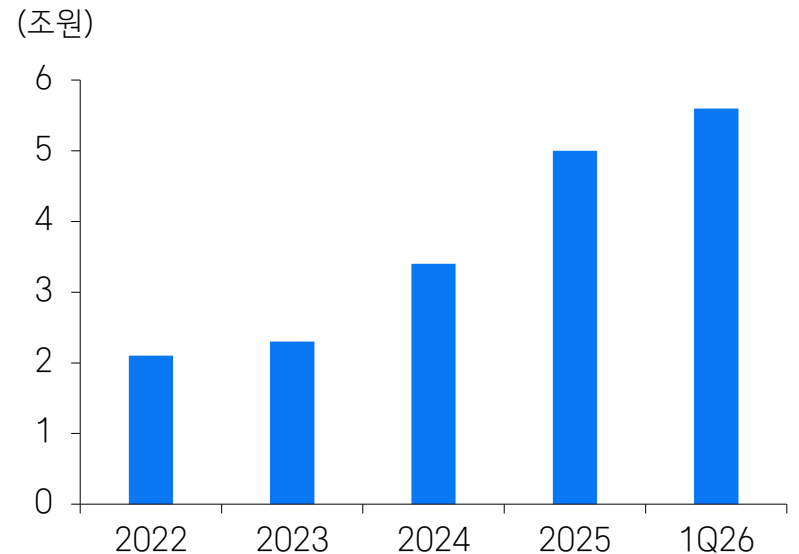
美 규제당국,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연결 속도 향상을 위한 조치 시행
승인까지 수년이 걸렸던 과정을 90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LS ELECTRIC 수주잔고 현황

북미 AI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에 1,064억원 규모의
고압 배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



자료: LS ELECTRIC, 삼성증권

주간 추천 종목 | Valuation Table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2026년 YTD 등락률 (%)	영업이익		밸류에이션 (2026E)	
			2026E (십억원)	YoY (%)	PER (배)	PBR (배)
삼성전자	2,069,583	195.2	363,166	732.9	8.0	3.3
SK하이닉스	1,969,909	324.6	262,274	455.6	9.1	5.7
SK스퀘어	234,886	383.7	40,454	359.8	6.4	4.4
삼성전기	169,555	790.2	1,589	74.0	137.2	16.0
현대차	125,517	106.7	12,018	4.8	15.5	1.3
삼성물산	79,705	105.2	3,624	10.1	30.7	1.3
삼성SDI	44,725	105.9	-36	적자지속	127.2	2.0
LS ELECTRIC	38,850	181.5	655	53.7	76.7	15.6
LG이노텍	27,099	322.5	1,122	68.7	33.2	4.1
두산	26,412	108.8	1,715	61.3	71.1	14.5

참고: '26.6.19. 종가 기준, '26년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Watching list | Valuation Table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2026년 YTD 등락률 (%)	영업이익		밸류에이션 (2026E)	
			2026E (십억원)	YoY (%)	PER (배)	PBR (배)
삼성생명	99,400	215.4	3,302	28.0	34.9	0.9
HD현대중공업	70,009	31.0	3,847	88.8	23.2	5.8
두산에너빌리티	62,711	30.0	1,126	47.7	213.3	7.7
현대모비스	55,528	64.1	3,719	10.8	13.4	1.0
SK	52,492	182.3	8,803	700.4	6.2	1.2
NAVER	36,006	-5.4	2,416	9.4	18.5	1.2
효성중공업	35,946	116.5	1,094	46.5	45.7	11.7
LG전자	34,450	130.1	3,857	55.6	19.5	1.5
에이피알	14,432	66.9	686	87.6	26.9	17.7
현대건설	14,320	83.5	830	27.0	26.6	1.6

참고: '26.6.19. 종가 기준, '26년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Watching list | Valuation Table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2026년 YTD 등락률 (%)	영업이익		밸류에이션 (2026E)		
			2026E (십억원)	YoY (%)	PER (배)	PBR (배)	
한국금융지주	12,873	42.9	3,347	42.7	5.3	1.0	
대한항공	10,292	23.9	769	-30.9	52.7	1.0	
대덕전자	7,724	231.8	240	388.8	40.3	7.5	
NC	5,968	37.5	507	3052.9	12.8	1.4	
디앤디파마텍	4,871	21.1	N/A	N/A	N/A	N/A	
OCI홀딩스	4,789	122.7	383	흑자전환	22.1	1.2	
현대백화점	4,199	119.8	421	11.4	16.2	0.9	
테스	3,218	273.1	97	67.7	35.4	6.3	
HL만도	3,066	11.2	406	13.6	15.6	1.1	
올릭스	2,683	-6.0	N/A	N/A	N/A	N/A	

참고: '26.6.19. 종가 기준, '26년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6월 18일 현재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6월 1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1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